



## ■ 리고베르타 멘추 원주민 정당 창당

과테말라 원주민 출신으로 1992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며 인권 운동가인 리고베르타 멘추가 키체(kiche)어로 ‘평등과 통합’을 의미하는 위낙(Winaq)라는 이름의 원주민 정당을 창당했다. 과테말라에서는 1만7천 명의 서명을 확보할 경우 헌법에 따라 정당을 창당할 수 있다. 멘추는 오늘 정당 등록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법적으로 공인된 정당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리고베르타 멘추

멘추는 주요 정치활동이 수도에만 집중되고 선거 기간에만 원주민의 이익에 대해 생각하는 현 정치인들의 세태를 비판하며 원주민의 관점에 근거해 과테말라에서 인종 간의 진정한 평등과 시민권의 회복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2011년 대통령 후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정당 총회를 통해 후보자 및 경선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멘추는 지난 2007년 대선에 입후보한 바 있다. 《Telesur》(2009. 3. 13)

## ■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77년 만에 국경분쟁 해결

지난 4월 27일 월요일(현지 시각) 아르헨티나에서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볼리비아 대통령과 페르난도 루고(Fernando Lugo) 파라과이 대통령은 양국 간 국경을 확정하는 협정에 합의했다. 크리스티나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국경 확정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 합의서를 양국 대통령에게 인계했고, 이로써 차코 전쟁(1932~35) 이후 양국이 조인한 평화협정이 완결되었다.



2009년 4월 27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크리스티나 아르헨티나 대통령(중앙)이 지켜보는 가운데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좌)과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우)이 국경조약에 서명하고 있다.

이날 조인식에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오늘은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에게 역사적인 날로, 양국 사이에 우호, 평화, 연대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으며,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 또한 양국의 관계 증진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태평양으로 향하는 출구 역할을 하는 파라과이 강이 흐르는 차코 지역은 바다와 접하지 못한 내륙국인 두 국가에게 전략적인 요충지였으며 전쟁으로 인해 주로 질병 및 식수 부족으로 양국을 통틀어 약 1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쟁 이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미국, 페루, 우루과이 등이 참여하는 국제위원회가 구성되어 1938년 7월 21일 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파라과이가 75%의 영토권을 소유하고 파라과이 강 통행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볼리비아가 25%의 영토권을 소유하는 평화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2007년에 이르러서야 위원회에 의해 정확한 국경이 확정되었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아틸리오 보론은 오랜 기간 동안 양국 간의 반목이 계속되어왔지만 지난 10년 동안 서로 간의 접촉이 증대되어왔으며 모랄레스 대통령과 루고 대통령의 집권으로 인해 관계 증진이 가속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흐름이 루고 대통령의 제안대로 양국이 에너지 자원을 교환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BBC Mundo》 (2009. 4. 28)

## ■ 가뭄에 메마른 이과수 폭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에 위치한 이과수 폭포의 낙수량이 예년의 삼분의 일로 줄어들었다.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관광명소이기도 한 이과수 폭포는 예년 이 시기 초당 170만 리터의 낙수량으로 장관을 연출하였으나 현재는 초당 48만 리터에 불과하다.



물줄기가 메말라버려 불그스레한 절벽과 바위가 드러난 이과수 폭포

브라질 국립수자원관리소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브라질 파라나 주에 두 달 넘게 가뭄이 지속되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지난 4월 가을에 접어들음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상승하는 등, 라틴아메리카 대륙 또한 기상이변에 시달리고 있다. 《El Clarin》 (2009. 5. 8)

## ■ 에콰도르,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재선

국가동맹운동(Movimientos Alianza País) 대통령 후보로 재선에 나선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승리가 확정된 후, 계속해서 사회주의 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특히 이번 승리는 1976년 이후 지금까지 재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없었다는 점에서 유례가 없는 역사적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로써 코레아 대통령은 2013년까지 대권을 쥐게 되었다.



지난 4월에 실시된 에콰도르 대선에서 승리한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환호하고 있다.

코레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사회적 정의와 지역적 정의를 위해, 그리고 모든 형태의 노동착취를 제거하기 위해 사회주의적 확신 속에서 투쟁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하였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며, 영원한 승리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자”고 호소하였다.

비정부기구인 시민참여(Participación Ciudadana)는 71.5%가 개표된 상황에서 51.7%의 지지를 얻은 국가동맹운동의 코레아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반해 애국사회당(Partido Sociedad Patriótica)의 루시오 구티에레스 후보는 28.4%를 득표하는 데 그쳤고 전했다. 《Granma》(2009. 4. 27)

## ■ 페루, 자원개발법 놓고 아마존 원주민 대표와 협상

페루 아마존 지역의 바과군(郡)와 콘도르칸키 군에 사는 원주민들은 영토권을 침해하는 자원개발법의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해왔다. 이에 국무회의 의장 예우데 시몬은 어제 정부 대표자 및 페루 밀림개발범종족협회(AIDSESP)에 소속된 아마존 지역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협상테이블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페루의 아마존지역 원주민

시몬은 협상테이블을 통해 특히 수자원법에 대한 아마존 지역 공동체의 문제제기가 정부측에 직접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수자원 사유화 방지 및 농지 관개를 위한 평등한 수자원 사용에 관한 조항이 사전 검토를 통해 개별 법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아마존지역 대표단은 국회의장 하비에르 벨라스케스 케스켄(Javier Velásquez Quesquén)과의 회담에서 지난해 10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원주민 문제 위원회가 합의한 해결책을 최상급의 입법 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El Comercio》(2009. 4. 21)